

# ‘벼 쓰러지고 과일 떨어지고’ 들녘 곳곳 생채기

##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

“일년내내 키운 배 우수수... 속이 타”  
그나마 매달린 과일도 상품성 하락  
재해보험 보상 등 서둘러 이뤄지길

“암만 약했다지만 가을 태풍은 태풍이여. 배든 벼든 떨어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아니여. 참 갑갑하구먼.”

지난 6일 밤부터 8일까지 전국을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광주·전남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당초 우려보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링링’이 몰고온 강풍의 여파는 만만치 않았다.

어물어간 벼가 쓰러지고 수확을 눈앞에 둔 과일들이 낙과피해를 입는 등 전남 농가에 적잖은 피해를 안겼다. 특히 과수농가는 태풍으로부터 비켜갈 수 없었다.

서둘러 수확에 나섰던 농가들은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땅위에 그대로 떨어진 과일들을 바라보며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8일 나주시 왕곡면의 한 배재배 농가. 이곳 주인 이합덕(57)씨가 배나무 사이사이로 떨어진 배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체념한 듯 “정성으로 키운 배들이 태풍 한번에 우수수 떨어져 속이 타다”며 “그나마 이번 가을 태풍은 농가를 덜 괴롭힌 편이지만 낙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낙과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매달린 배들도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잦은 이씨의 배밭도 방풍망이 찢어지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

이씨의 배밭 규모는 2.6ha. 이씨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약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나무들에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7일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에서 정전사태를 비롯해 벼 쓰러짐과 과수농가의 낙과 피해 등이 속출했다. 나주의 한 과수농가에서 박송기 씨가 강풍에 떨어진 배를 주워 모으고 있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서 배들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씨는 “아직 보험회사에서 낙과 수를 집계하러 나오지 않아 정확히 몇개가 떨어졌는지는 모른다”며 “태풍이 오기 전에는 70% 정도가 낙과할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피해보다 조금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낙과 수 집계도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수확이 어려울 것 같다. 남은 배들은 아마 추석이 지나고서야 수확이 가능해보인다”며 “그 사이 겨울 매달려있는 배들도 과일 꼭지가 약해져 추가 낙과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매달려있는 배들도 바람 때문

에 서로 부딪쳐 걸면에 상처가 나거나 명이 들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화순 동북면에서는 이번 강풍에 쓰러진 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경식(59)씨는 “당장이라도 쓰러진 벼들을 세워야겠지만 주말인 탓에 사람도 없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쉬어야겠다”며 “쓰러진 것들을 묶어 세워도 이미 한번 꺾인 벼들은 힘이 없다. 알곡이 들어차 있어 그 무게 때문에 쓰러지는 상태라면 모를까 달이기는 상태에서라면 내버려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곧 인력을 구해 쓰러진 벼들을 세울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추가로 드는 인건비 탓에

고민이 크다. 전남 들녘에서 만난 농민들은 이번 태풍의 위력이 우려했던 것보다 약했다고는 하지만 태풍이 휩쓸고 간 상처는 여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주 왕곡면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금자(63·여)씨는 “예로부터 가을 태풍은 농민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올해는 피해가 이만한 듯 해 그나마 다행이다”며 “작든 크든 피해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재해보험보상 등이 하루 빨리 이뤄져 농민들의 근심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2578@srb.co.kr

## 한빛원전 인근서 또 드론 목격

비행금지구역인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비행중인 드론이 또다시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광경찰서는 8일 한빛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은 지난 7일 오전 10시15분께 한빛원전에서 4~6km 정도 떨어진 가마미해수욕장에서 20여분 가량 한빛원전 상공을 비행한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드론이 이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수욕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사용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전남대병원노조, ‘채용부정’ 관련자 검찰 고발

“관련 문서 23건 분실한 것도 의구심”  
병원측 “채용 관련 불법행위 없었다”

전남대병원 노동조합이 채용 부정과 관련해 병원 측의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지난 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관련자 중 12명에게만 징계(감봉1명·경고11명)를 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아 대상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지난해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

리 감사에서 한 관리자는 조카 서류·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줬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감사 결과와 연루자 공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문서를 23건 분실한 것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 직후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조치를 요구받고 처분했다”며 “채용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없었고 수사 의뢰 요구도 없었다”고 반

박했다. 또 “해당 관리자는 채용 전반 업무 책임자라 결재에 참여했으나 면접위원 등 시험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2013년 직책상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조카가 면접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문서 보관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행정동 이사 중 일부가 분실된 것”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정보는 법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나 인사관리 사항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발표를 통해 관련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신용동 지구단위계획 재지정 적법” 법원, ‘광주시 결정 취소’ 소송 기각

법원이 북구 신용동 일부 지역 내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한 광주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8일 A씨 등 11명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구역지정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2년 7월15일 북구 신용동 일부 지역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가 3년 이내 결정·고시되지 않자 2015년 7월15일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침단 2단계와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 압력 확산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계획적 개발의 유도가 요구된다’며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중 상당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급하게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역의 입지와 주변 여건 등에 비춰 계획적·체계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2025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관계 공무원·유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이 실향된 것은 개발비용 조달의 어려움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소정의 기간 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지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부적합성이나 불필요성을 인정하고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30대 車절도범, 담배꽂초로 달미

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로 인해 경찰에 달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타인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 15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B(36)씨가 잠든 틈을 타 차량 열쇠를 훔친 뒤 인근에 세워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다. 버려진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A씨가 차량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을 확인하고 담배꽂초를 수거해 DNA 감식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과 43명으로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흥성기자 zorba85@srb.co.kr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산도 물도 사람도 붉게 물드는  
삼홍(三紅)의 명소, 피아골  
가을엔 구례로 오세요!

To.  
앞과 열매,  
자연이 짝지어지는 계절  
'구례'  
로 초대합니다

GURYE MOUNTAIN  
156-55334